

# 나주시, '2026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400여 명 화합 다져

###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사회적 지지 확대의 장



윤병태 나주시장이 '2026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사회 연대와 회복의 가치를 나눴다.

26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날 나주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6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했으며 전남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과 가족, 정신재활시설 및 요양시설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소통과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

해 마련됐으며 도지사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문화 공연과 체육행사, 포토존, 카페테리아, 인권강화 시화 전시회, 마약 근절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문화·체육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사회 적응 능력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회원과 가족, 기관 간 교류와 화합을 증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지역 회원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서로를 응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연대와 회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 /이문수 기자

담양군, 청렴책임간부제 운영 점검

화순군, 대한민국기록문화대상 청년·미래부문 대상

담양군은 최근 간부공무원 청렴지킴이단을 중심으로 '2026년 청렴정책추진단 회의'를 열고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 상황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청렴지킴이단은 올해 담양군이 새롭게 도입한 시책으로, 간부공무원인 부서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자율적인 청렴 활동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정국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부서별 자율 청렴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최종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기록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청년·미래기록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대한민국기록문화대상 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기록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세계평화사랑연맹과 KRI한국기록원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시상은 기록의 양적 성과를 넘어 ▲가치성 ▲공공성 ▲사회적 파급력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시상은 기록의 양적 성과를 넘어 가치성, 공공성, 사회적 파급력,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문수 기자

## 영광, 재가 의료급여 · 장기입원 사례관리 홍보 나서

## 장성, 여름철 재난 대비 총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점검

### 재가 의료급여·장기입원 사례관리로 수급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28일 점검회의...광주지방기상청, 경찰서, 소방서, 농어촌공사 동참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재가 의료급여 및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로 31일 이상 입원 중이며,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하고 퇴원 후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수급자로, 의료급여 관리사의 방문상담을 통해 선정된다.

또한, 장기입원 사례관리는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복지제도 및 사회서비스 안내, 건강 상담,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의 자립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 과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와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재가 의료급여 사업 및 장기입원 사례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의료급여관리)팀(☎350-58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률 기자

장성군이 폭염·폭우 등 하절기 재난상황 대응에 대한 유관기관과 부서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포괄적인 보완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췄다.

군은 지난 25일 상황실에서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유관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가졌다. 김한중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실·과·소·읍·면장을 비롯해 광주지방기상청, 장성경찰서, 장성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의 기상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4.7℃로 평년보다 1℃ 가량 높았다.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도 각각 17.4일과 11.6일로 평년보다 약 5~7일 늘어났다.

반면, 최근 10년간 강수량은 673.3mm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강수일수는 2일쯤 줄었다.

회의에선 달라진 제도에 대한 내용도 공유됐다. 올해부터 체감온도 38℃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유관기관 합동 점검회의의 사진. /장성군 제공

으로 예상될 때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며, 밤 최저온도가 25℃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관측되면 읍·면·동 단위로 재난성호우 긴급문자를 발송해 주민 대피를 유도한다. 시간당 85mm, 15분당 25mm의 강우량이 예상될 때에도 선

제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대응 시간을 확보한다.

이어진 유관기관 및 부서별 대책 발표 순서에선 풍수해·폭염 준비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보완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한 조율과 공유도 폭넓게 이뤄졌다. /유광중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